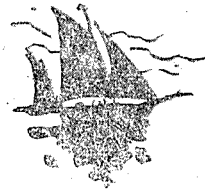


거나 또는 잇솔질을 바른 방법으로
한 후 불소화합물을 이용하여 양치
질을 하므로써 치질을 강하게 하여
차아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다.

일반적으로 구강은 중요한 신체
의 일부분으로서 우리몸의 건강유
지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
우리는 옛부터 구강의 건강을 경시
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. 그래서 입
안에 병이 발생한 후에야 진통제를
먹거나 치과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
고 그러나 일단 구강에 생긴 이 두
가지 질환은 자연이 치유가 되는
것이 아니고 전문가인 치과 의사의
치료로서만이 관리할 수가 있기에
치료를 하는 것이 경비도 적게 들며
고생도 하지 않으며 자기 신체의
중요한 일부분인 구강을 오래까지
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
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
이 가장 이상적이다. 구강병은 한
번 치료로 완전하게 끝나는 것이
아니고 항상 계속해서 예방과 관리
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
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번이나 6
개월에 한번은 정기적으로 치과의
원에 가서 전문가인 치과 의사의 진
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
것이다.

〈필자=서울大 齒大 교수·의박〉

이를 빼고 해 넣어야 하는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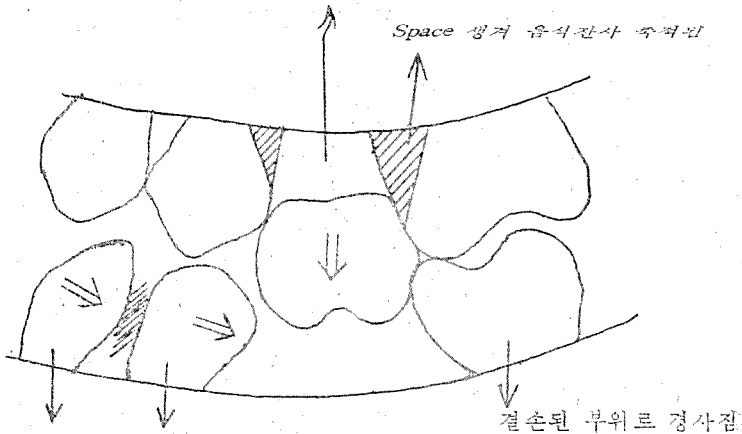


이 후 용

“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고 살
지”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옛날 골
방 공부 하던 때의 사고방식이 아
닌가 싶다. 허지만 등불을 켜고 살
던 그 시절은, 입에 풀칠하기에도
바쁘지라 자기 건강을 돌볼 여지도
없었으니, 그러한 말이 나올만도
했다. 그러나 요즘 우리는 전기
시설 뿐만 아니라, 텔레비전 등 온갖
문화문명 생활을 누리며 과학적으
로 건강을 돌보며 오랜 삶의 즐거
움을 영위할 때가 왔다고 본다.

음식이란 충분히 씹어야 제맛이
나게 마련이고, 또 소화가 잘 되어
영양분이 잘 흡수됨으로써 건강하
게 살 수 있는 것이다. 말을 할 때

결손된 부위로 정렬됨



결손된 부위로 경사짐

에 이가 빠지면, 제대로 발음을 낼 수 없게 되고, 모양(안모)도 흉해지게 된다. 이를 빼고 해 넣어야 하는 이유를 쉽게 요약하면 첫째 음식을 씹어먹고 둘째 정확한 발음으로 똑똑히 말할 수 있으며 셋째로는 미관상의 회복으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다. 이러한 기본적인 이유 이외에도,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. 사람들의 이는 여러개의 치아가 인접되어 서로 기대어 있는 상태라서 어느 치아가 빠지면, 그 공간쪽으로 치아들이 차츰 차츰 쓰러지게 된다(그림참고)그 결과 인접치아 사이에는 음식이 끼게 되어 불결하게 된다. 또한 아래 잇니는 서로 접촉하며 적당히 기능을 해야 생리적으로 치아의 건강이 유지되게 마

련인데 어느 치아가 빠지면, 접촉이 되지 않는 반대악의 치아는 생리적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약해지고 치근에 병이 생기게 된다. 다시 말해서 이를 뺀 공간으로 인접 치아가 몰리고, 반대악의 치아가 약해지며, 그 공간으로 서서히 치아가 솟아나게 되어 치아 주위에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된다(그림참고)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빠진 쪽으로는 음식을 씹지 않게 됨으로 더 불결해지고 그 결과 아래 잇니가 다 잇몸의 병이나, 충치가 많이 생겨서, 결국은 이를 빼고 해넣는 목적은 저작, 발음, 용모의 회복은 물론 더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잔존 치아의 건강과 구강보건을 유지하는데에 있다고 본다.

<필자=연세치대 부속병원 보철과장>